

HYUNDAI E&C TODAY

Vol 396
2021/1/26 TUE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을지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소피 임직원의 “행복하소”

근면성실과 우직함의 상징인 소. 특히 올해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진 ‘원소의 예다. <사보 신문>에서는 신년을 맞이해 국내외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소피 직원들의 행복 메시지를 들어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해 첫 수주... ‘현대 스탠더드’의 저력을 잇다

사우디 하일-알 주프 380kV 송전선 공사 ... 첫 해외 수주 포문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은빛 송전선로의 맥을 다시금 잇는다. 현대건설은 최근 사우디 중부 전력청(SEC-COA)이 발주한 1억991만 달러 규모의 ‘하일(Hail)-알 주프(Al Jouf) 380kV 송전선 공사’와 7000만 달러 규모의 ‘라파(Rafha) 380kV 변전소 공사’를 연이어 따내며, 올해 해외 수주의 시동을 걸었다. ‘하일(Hail)-알 주프(Al Jouf) 380kV 송전선 공사’는 사우디 중북부 하일에서 알 주프까지 375km 구간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1월 착공 후 2022년 10월 완공이 목표다. 또한 ‘라파(Rafha) 380kV 변전소 공사’는 380kV GIS(가스절연 개폐장치) 17기와 502MVA 변압기 2대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사우디 북부 라파 지역에 들어선다. 현대건설과 사우디의 인연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건설은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사우디 내무성 분청공사’ ‘마틴 알루미나 제련공사’ 등 총 156개, 약 17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중 송·변전 분야에서 현대건설의 존재는 독보적이다. 현재까지 사우디에서만 송전공사 30개, 변전공사 23개 공사를 맡았다. 2001년 당시 설계된 380kV 철탑을 전력청 표준 설계로 채택해 ‘현대 스탠더드(HYUNDAI Standard)’라고 이름 붙여 사용할 정도다. 지금도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사우디, 쿠웨이트 및 걸프 연안국가 전력망 연계공사를 통해 중동 전역으로 확대돼 ‘현대 스탠더드’의 이름을 떨치고 있다.

Hyundai E&C has kickstarted a race for this year’s overseas business by receiving a 109.91-million-dollar deal to build a 380kV transmission line between Hail and Al Jouf from Saudi Arabia’s SEC-COA (Saudi Electricity Company) on January 10 (local time). The project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a high-voltage transmissionline in the 375-kilometer section between Hail and Al Jouf substations. The project is slated to start in January 2021 and be completed in October 2022. A close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Hyundai E&C and Saudi Arabia traces back to the year 1975 when Korea’s primary builder entered the country’s market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Jubail industrial port. For about half a century, Hyundai E&C successfully completed a total of 156 projects valued at approximately 17 billion dollars in the country. Above all things, Hyundai E&C has maintained a dominant presence in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acilities: The builder has so far conducted 30 transmission projects and 23 substation projects in the largest country in the Arabian Peninsula alone. SEC selected the 380 kV power transmission steel towers designed by the builder in 2001 as its standard design and named it “Hyundai Standard” which has become well known in the entire region of the Middle East.

2021 MANAGEMENT POLICY

**GLOBAL CONSTRUCTION LEADER
FOR HAPPINESS OF ALL**

행복 실현 글로벌 건설 리더

사우디 타북-타바잘 380kV 송전선로 공사

Hyundai E&C sees strong orders for 2021

Sailing before the wind: Our company wins orders at home and abroad

Hyundai E&C is solidifying its leading position from the beginning of this year by obtaining orders both at home and abroad.

Our company announced a fresh new start for 2021: On January 9, our company has been selected as the final successful bidder to remodel Shinjeong Village Complex 9 in Suji, Yongin-si. The project aims to remodel the existing Jugong apartment consisting of nine buildings with 20 floors above ground and one basement level into those with 23 floors above ground and three basement levels in a bid to increase the number of apartment units from 812 to 914. The construction costs 228 billion won. Living up to its name, Hillstate Great Nine, a new name for the apartment complex to be remodeled, will showcase the combination



of high-quality convenient facilities, advanced designs and high-end finishing materials as one of Korea's best residential masterpieces.

In addition, our company signed

a 109.91-million-dollar contract for the Hail-AI Jouf 380 kV transmission line project with Saudi Arabia's SEC-COA (Saudi Electricity Company) on January 10 (local time). The project



is designed to build a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 in the 375-kilometer section connecting Hail and AI Jouf, the north central region of the country. Our company aims to begin

the construction in January 2021 and finish it in October 2022. We will accelerate our efforts to take this project as an opportunity to receive new orders from SEC in the future.

새해부터 국내외 수주 '순풍' ... '건설명가' 뚝 달다

올해 수주 목표 25조4000억원 향해 순항 ... 사우디 하일-알 주프 380kV 송전선-용인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등 수주

우리 회사가 신년 초부터 국내외 건설 시장에서 연이은 수주 행보를 이어가며 글로벌 건설 리더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1월 9일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으로 따내며 기본 좋은 첫 출발을 알렸다. 이 사업은 지하 1층~지상 20층 9개 동 규모의 주공아파트 812세대를 증축해 지하 3층~지상 23층 9개 동

914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2280억원이다. 우리 회사는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그레이트 나인(Great Nine)'으로 정하고 고급 편의 시설과 첨단 특화설계, 명품 마감재 등이 어우러진 국내 최고 수준의 주거명작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도 시정비 부문에서 사상 최대 실적(4조 7383억원)을 기록한 우리 회사는 이 기세를 이어가 주택사업본부 내 리모

델링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어 해외에서는 1월 10일(현지시간 기준) 사우디 중부 전력청(SEC-COA)이 발주한 1억991만 달러 규모의 '하일(Hail)-알 주프(AI Jouf) 380kV 송전선 공사의 정식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중북부 하일에서 알 주프까지 375km 구간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하

는 것으로, 1월 착공 후 2022년 10월 완공이 목표다. 우리 회사는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향후 신규 발주될 사우디 전력청 발주공사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우디 현지 업체들의 공격적인 수주 경쟁 속에서도 발주처의 굳건한 신뢰가 밑거름이 되어 맺은 결실"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불구하고 우

리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루를 인정받아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우리 회사는 '대구 대명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충무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KOITTI 시험연 구원 과천 신사옥 신축공사' 'SW 드림타운 건립공사' 등을 연이어 수주하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mproving competitiveness in smart construction through open innovation

Our company is poised to make an equity investment in TENEEVEN, an AI-based company specializing in three-dimensional solutions, in order to improve our competitiveness in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TENEEVEN, founded in 2014, analyzes geographical features, views and building laws to provide advanced technologies for optimized layout designs for multi-family housing. The start-up company is increasingly expanding its businesses through partnership with construction companies, design companies and developers. Our company sets out to improve our capabilities in designing and selling multi-family housing by joining hands with TENEEVEN to develop the "AI-based, three-dimensional automatic design system for apartments."

Our company will capitalize on the new system to win orders for THE H and Hillstate



brands. We will proactively acquire technological capabilities to design environment-friendly structures within the apartments as well as seek to conduct new businesses to secure future growth engines by jointly promoting modular housing at home and abroad.

To realize a paradigm shift and create an ecology for AI-based design automation, we will spur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among Hyundai E&C, HDA and TENEEVEN.

AI 건축 자동설계 솔루션 스타트업에 투자 ...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스마트 건설 경쟁력 강화

우리 회사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기반 3D설계 솔루션 전문기업인 쉐넬일레븐에 지분 투자를 한다. 투자금액은 쉐넬일레븐 전체 지분의 6% 규모로, 우리 회사를 포함해 쉐바이브컴퍼니, 쉐호반건설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2014년 설립된 쉐넬일레븐은 사업자의 지형·조망건축 법규 등을 분석해 최적의 공동주택 배치설계안을 도출하는 'AI 건축설계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으로, 건설사·설계사·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쉐넬일레븐과 'AI 기반 공동주택 3D 자동설계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해 공동 주택 설계 및 영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우리 회사는 'AI 기반 공동주택 3D 자동설

계 시스템'을 '디에이지 '힐스테이트'의 수주·영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단지 내 태양광발전 설비 배치 등 친환경 건축물 설계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국내외 모듈러 주택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력 기반으로 수행돼 오던 국내 건축 초기 설계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AI 기반 설계 자동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대건설(건설사)-현대종합설계(설계사)-텔일레븐(IT사) 간 ICT 융·복합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 및 신사업 분야의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이야 호텔이야" 디에이지 포레스트 입주

2018년 10월에 착공한 '디에이지 포레스트'가 최근 준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다. 디에이지 포레스트는 지하 3층~지상 22층, 4개 동, 전용 면적 59~121㎡ 총 184세대 규모로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앞에는 일원초, 중동중이 위치하며, 명문 고교인 중동고도 도보 통학할 수 있다.

이 단지는 '강남 최초 도심 프리미엄 힐링 리조트 단지'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디에이지만의 특화 아이টে็ม으로 꾸며졌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스카이가든'이다. 단지 옥상 공간을 야외 영화관람홀, 클라이밍, 와인바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단지 내 조경 공간을 옥상 공간까지 확대하고 옥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조망과 채광의 장점을 활용해 입주민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미세먼지 토털 솔루션'은 물론 미세먼지를 비롯해 외부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H 클린원관'도 디에이지 단지 최초로 적용됐다.

GROUP NEWS

Hyundai Motor Group advances hydrogen strategy with new fuel cell system plant in Guangzhou

Hyundai Motor Group (the Group) announced on January 15 that it signed an investment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of Guangdong Province to establish an offshore fuel cell system production facility in Guangzhou, China. The investment advances the Group's global hydrogen leadership and supports its push into China's rapidly developing hydrogen industry.

Attendees at the signing ceremony included Lee Kwang-guk, President and Head of China Operations at the Group; Lee Hyuk-joon, Senior Vice President and Chief Government Affairs Officer of Hyundai Motor Group China Ltd.; Lin Keqing, Executive Vice Governor of Guangdong Province; Hu Hong, Vice Mayor of Guangzhou Municipal Government; and Chen Yong, District Chief of Huangpu District



Guangzhou Municipal Government. Construction is scheduled to begin next month and will be completed by the second half of 2022. The plant will be the Group's first fuel cell production base outside of Korea, with the initial capacity to produce 6,500 units of fuel cell systems per year. The Group will gradually increase the capacity in line with market demand.

2021 Management Policy

Global Construction Leader for Happiness of All

행복 실현 글로벌 건설 리더

지속가능 성장
신행적·능동적 자세
구체적 실천과 강한 추진력
유형적 사고를 통한 기술 혁신

사회적 책임
고객 감동 경영
안전·품질 최우선
투명·공정한 업무 수행

행복한 일터
일직원의 행복과 자발적 의지 중시
관료적이고 경직된 문화 탈피
경청·공감이고 배려하는 문화

Sustainable Growth
Proactive attitude
Specific implementation and strong drive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convergent thinking

Social Responsibility
Customer satisfaction
Safety and quality first
Transparent and fair business performance

Happy Workplace
Happy employees with voluntary willingness
Free from bureaucratic and rigid culture
Attentive and considerate culture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현대건설 12대 안전규범 1탄

현대건설은 12대 안전규범의 생활화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전 위험성 관리

사전 작업 허가제 준수

관리자 PTW 작성 및 유효성 검토
PTW 이행 상태 점검 및 일일확인서명 실시

근로자 작업 전 PTW 숙지
PTW 위험점점 대책 이행

안전 작업 상태 확보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구 착용

관리자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착용
안전시설 설치 유무 확인/점검
-주목: 난간대, 개구부 덮개, 안전대 걸이시설 등
-낙하: 낙하물 방지망, 방호산반 등

근로자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작업 금지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착용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관리자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감시인 배치
비상시 대피 구조계획 수립
밀폐공간 출입자 관리(입/퇴실 인원 관리)
금지/배기장치 설치

근로자 밀폐공간 작업 전 특별교육 이수
산소농도 18% 이상 여부 확인 후 작업
금지/배기장치 설치 상태 확인 후 작업

작업 전 전기 안전점검 실시

관리자 분전반 및 충전반 방호상태 확인
누전차단기 및 접지 상태 확인

근로자 작업 전 전기 기계/기구 점검
작업 전 전선상태 점검
(피복 상태 확인, 전선 절정 거치)



소띠 임직원의 "행복하소~!"



신년기획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다. 근면성실과 우직함의 상징인 소. 올해는 특히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진 흰 소의 해인 만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고 있다. 예측할 겨를 없어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린 2020년은 모두가 고군분투한 해였다. 올해는 조금 더 마음 놓고 행복할 수 있길 바라며 소띠 임직원의 행복, 그리고 2021년을 향한 메시지를 들여보았다. 글·정리-이진우

“우리 모두 앞으로 달려가소!”

- 2021년 들어 가장 많이 한 말은 “아~~ 왜~~ 줘!” 현장 업무를 하다 보면 애걸이라고 하는 방향이다 때가 있다. 업무도 인간관계의 연속이라 일단 친근하게 말이 나간다.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알리고자 할 때 시작하는 한마디.
- 나의 행복지수는 **63%**. 물론 가족이 가장 큰 행복이지만, 현대건설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나의 행복 원동력이다. 정년 목표 근무 33년 중 21년을 채웠으니 63% 정도!
- 행복지수 100%를 채우기 위해 나는 **정년퇴임할** 것이다. 선우배 동료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소임을 다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
- 때때로 힘들거나 무기력할 때 나는 **정의의 승리가**는 **만복을 본다**. 그러면 갑자기 세상이 정의를롭게 보인다. 유지 시간이 길진 않지만(웃음).
-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후배들에게 친구 같은 끈대기**다. 후배들이 가끔 끈대고 있는데 어항 끈대면 거절 어울리고 소름 나는 끈대기 되기로 했다. 로또나연금액권 1등을 할거나까 빼고~!



“사랑과 평화, 그리고 목표를 잘 이루어소~!”

- 2021년 들어 가장 많이 한 말은 “**뽀뽀**였습니다!” 나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일 것 같다.
- 나의 행복지수는 **12%**. 내 행복의 원동력은 가족과 성취감인데 지금은 집에서 먼 현장에서 근무 주야로 주말엔 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근 1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기도 힘들었던 탓에 성취감을 얻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행복 지수가 낮아졌다.
- 행복지수 100%를 채우기 위해 나는 “**이번 현장 잘 끝내고 쉬자**”는 **생각으로 열일(열심히 일할)** 것이다.
- 때때로 힘들거나 무기력할 때 나는 **빠르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한다. 워드 하나 잘 끝내고 나면 나도 쓰임새가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아진다. 때때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타를 치기도 하고, 컴퓨터 하면서 버그를 찾아내기도 한다.
-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집에서 자전거를 출퇴근**이다. 올해 말 중공 예정인 현장을 잘 끝내고 아내와 신혼을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크다.



“모두 부자 되소!”

- 2021년 들어 가장 많이 한 말은 “**어안어, 그만~!**” 현장에 투입돼 주말 근무가 생긴 이후, 더 많이 물어주기를 바라는 우리 딸에게 요즘 들어 많이 하는 말.
- 나의 행복지수는 **95%**. 당연이 가족이 최고 동기부여 요소가 아닐까. 힘든 일은 최대한 긍정 마인드로 이겨내려 한다. 스스로 절제해서 주변에 그 기운이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 행복지수 100%를 채우기 위해 나는 **운동**할 것이다. 요즘 건강에 약은 일도, 힘든 일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있다.
- 때때로 힘들거나 무기력할 때 나는 **여행을 한다**. 근래에는 할 수 없지만, 가족과 함께 새로운 곳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힘을 내고 했다. 다시 국내외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말과 몸의 시간을 공유하며 추억을 쌓는 것**. 사랑스러운 딸의 여섯 살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고 오래 기억하고 싶다. 내년 이쯤에는 많은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을 한해를 보낼 것이다.



“오늘도 행복하소!”

- 2021년 들어 가장 많이 한 말은 “**손 씻자~**” 씻기 싫어하는 우리 꼬맹이 아들 달래서 손 씻기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이다. 코로나19와 재택근무 덕분에 잔소리쟁이가 아뻏가 되어버렸다.
- 나의 행복지수는 **90%**. 코로나19만 아니면 100%일텐데 아쉽다. 행복의 원동력은 단연 가족. 함께 있을 때도, 떨어져 있을 때도 가족 생각으로 힘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이 가족들과 더 자주 함께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 행복지수 100%를 채우기 위해 나는 **오늘 행복**할 것이다. “Carpe Diem”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의생하는 게 아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매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 때때로 힘들거나 무기력할 때 나는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충실**한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 같다.
-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매일 운동하며 건강하게 나를 지켜 나가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다.



“무탈하소!”

- 2021년 들어 가장 많이 한 말은 “**건강 유의하세요!**” 유선이나 텍스트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게 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뜻밖의 징상이 나타나기 바라는 마음이다.
- 나의 행복지수는 **50%**. 내 행복의 원동력은 어린 딸이다.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무엇보다 딸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기억되고 싶다. 좋은 엄마가 되려면 우선 친근함 제때 해야 할 것 같지만..^^
- 행복지수 100%를 채우기 위해 나는 **굴이 노력**하진 **않을** 것이다. 아무래우 살다 보면 힘들게 지내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행복이 함께하지 않을까.
- 때때로 힘들거나 무기력할 때 나는 **몸을 움직여 잠념과 힘들음을 떨쳐낸다**. 그리고 소소하더라도 가족, 주변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는.
-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항공기 타고 해외 진출**을 담당했었지만, 진심으로 어서 이 시국이 끝나고 주변국 여행, 국내 유가 등을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하늘같이 열리길 바란다.



“웃을 일만 가득하소!”

- 2021년 들어 가장 많이 한 말은 “**코로나 끝나면 ~하자!**”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기억 없는 약속만 늘어난다. 올해는 만남도, 여행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나의 행복지수는 **70%**.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충전한다. 먹는 걸 좋아하는 나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일이다.
- 행복지수 100%를 채우기 위해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것이다.
- 때때로 힘들거나 무기력할 때 나는 **몸을 피곤하게 한다**. 운동을 하거나 미뤄둔 정소를 먹는 등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일단 움직인다. 힘들수록 혼자 있기보단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혼자 여행**이다. 오랫동안 여행을 못하니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혼자 여행에 본격적이어서 홀로 떠나는 여행의 묘미를 느껴 보고 싶다.



당신의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우리 인생의 핵심이다.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열심이 일하고, 자기관리를 나를 챙기는 데에는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목표가 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20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872점으로 153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등 사회적 관점에서 산출한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이 정도. 물론 개인의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수치화하기 어렵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살의 어떤 부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스스로 알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닐까.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 심리학자 로버트 헤링턴의 ‘행복지수 테스트’

1 다음의 직업 중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면 당신은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 매우 어렵고 도전적이지만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직업
- 자신의 재능에 적합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 권력 있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직업

2 당신은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편인가?

- 거절을 잘 못해 거의 들어준다
- 나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준다
- 신세를 진 일이 생각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

3 당신의 평소 수면 습관은 어떠한가?

- 깊게 자고 쉽게 잠이 든다
- 얕게 자고 자주 잘 깬다
- 잠들면 숙면하나 잠들기가 어렵다

4 당신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가?

-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평화롭고 창조적인 시간은 혼자 있을 때다
- 아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 아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지만 또한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않는다

5 당신은 주변을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는가?

- 매우 중요하다. 내 주변만은 깔끔해야 한다
- 중요하다. 사실 조금 더 환경을 정돈할 수 있으면 좋겠다
- 깔끔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지저분한 것에 그리 많이 신경 쓰진 않는다
- 중요하지 않다. 너무 깔끔한 곳보다는 어질러진 것이 편이다

6 당신은 다음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친구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 속물적이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
- 심술궂고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잔인한 사람
- 거칠고 강제로 예의가 없는 사람

7 당신은 지난 6개월 동안 병 때문에 직장 또는 학교에 나가지 못한 적이 있는가?

- 한 번도 없다
- 한 번
- 두 번 이상



8 어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당신의 반응은?

- 그 사람을 위로하고 기분을 돌우려고 애쓸 것이다
- 그 사람이 받는 만큼 나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 애석한 내 감정을 알리기는 하지만 평소처럼 대할 것이다

9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것에 얼마나 정확하나?

- 매우 정확하다. 나는 시간관념이 정확하다
- 정확하지 않다. 제시간에 도착한 적이 별로 없다
-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잘 지키는 경우도 있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정확한 편이다. 예상한 시간에 대체로 도착한다

10 당신에게 부당하게 큰 사람에게 화가 났을 경우, 그 화는 얼마나 가는가?

- 매우 오래간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 화를 내지 않는다. 화내는 것 자체가 병적인 마음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 별로 길게 가지 않는다. 화가 나기는 하지만 원한을 오래 품지 않는다
- 계속 화를 내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을 피한다

11 당신이 뜻밖에 수십억원의 돈을 상속받게 됐다면 당신의 반응은?

- 매우 기쁠 것이다
- 그 돈이 가져올 문제점을 예상한다
-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될 것이다

12 당신은 결혼상대자의 어느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미모 ② 부 ③ 지성 ④ 친화력(친밀감) ⑤ 열애 ⑥ 이해심

13 당신의 사고 스타일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 나는 소수의 가까운 친구하고만 사귀는 경향이 있다
- 나는 사회적으로 적극적이어서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 친구는 많으나 늘 만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보통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교체한다

14 당신은 다음의 어느 것에 동의하는가?

- 세월은 삼시간에 자취도 없이 흘러가버린다
- 세월은 천천히 흐른다
- 하루하루는 길지만, 주와 달은 빨리 지나간다
- 하루하루는 빠른 것 같고, 주와 달은 느린 것 같다

15 당신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가?

- 매우 좋다
- 좋은 편이다. 나의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괜찮고 점차 더 좋아지고 있다
- 좋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때그때 다르다. 만족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불만스러울 때도 있다

* 본인의 응답 중 아래와 일치하는 답을 각각 1점씩으로 계산에 더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②	②	①	③	③	②	1or②	③	④	③	①	④	③	④	②
결과	7점 이상 행복해요 😊				4-6점 행복한 순간이 제법 많아요 😊				2점 이하 삶에 기쁨이 없어워 😞					

일상에서 소소하게 행복해지는 법 자연과 가까이 하기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자미다의 의미로 행복감을 느낀다. 에너지가 고갈했다 싶으면 다시 충전되기를 기원하 기다리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하는 행위로 그 틈을 채우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 자연을 찾는 것도 그중 하나다. 『2020 세계행복보고서』는 특히 행복과 자연환경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야외의 푸른 공간에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평균 약 14%, 화창한 햇빛은 약 24%, 야외에서 걷거나 하이킹을 할 경우 약 24%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적으로도 자연환경에 놓였을 때 스트레스 감소, 인지 회복, 자기 조절에 대한 긍정적 영향 등 정신 건강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산 내음, 바다 내음 가득한 곳으로 마음 놓고 떠나기 힘든 요즘,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해 보는 것은 어떨까?

푸릇푸릇 일상 속 작은 자연 ‘플랜테리어’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플랜테리어(Plant+interior)의 합성어가 인기가. 식물에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많아 반려식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 마음 안정과 눈의 피로 해소에 도움 줄 식물-오피스 가드닝에 도전해 보자.

- 선인장도 말려버리는 사람이려면 내게 맞는 식물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식물을 돌 장소에 햇빛이 얼마나 드는지, 건조한 편인지, 비료를 잘 통하는지, 내가 물을 자주 줄 수 있는 사람인지(물경과 특성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자).

- 책상 위에 두면 좋을 추천!
- 문서인 위에만 의논은 물론 전자파를 차단하고 다른 식물에 비해 음이온을 30배나 내뿜어 사무실 화분 친구로 인기가 많다.
- 테이블 아자 책상 위에 작은 정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테이블 아자. NASA가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로 실내 습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 미니 선인장 보기도 해도 웃음을 자아내는 귀여움으로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전자파도 차단해 준다. 다양한 선인장 중 내 스타일을 고르는 재미는 덤.

- 식물 키우기, 어렵다면? 환경에 맞는 식물 추천부터 구입, 키우기 노하우와 전문 가드너의 상담까지 가능한 식물샵 리퍼(O.R)의 도움을 받아보자.



맑은 공기 마시며 활력 충전 ‘걷기 & 하이킹’

가벼운 신체 활동은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적한 산책을 찾아 걸어보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볍게 한 바퀴 도는 것도 좋다. 절간 갈더라도 바른 자세와 편안한 옷차림은 필수다.

- 몸과 목이 곧게 서도록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정면의 약간 위, 턱은 살짝 당긴 상태로 걸기 올바른 자세다. 앞으로 나간 발의 뒤꿈치, 발바닥, 발의 앞 끝이 차례대로 지면에 닿도록 걷는다. 몸의 무게중심은 발뒤꿈치에서 발바닥 바깥쪽,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으로 옮겨가는 게 좋다.

- 땀 흡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하자. 팔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한다. 운동화는 지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발가락을 너무 조이지 않는, 발바닥 디딤이 안정감 있는 것이 좋다.

- 이런 협회가 있다! 걷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 운동강도, 효과 등 걷기 정보가 가득한 대한걷기협회(O.R)로 GoGo!



자연에서 온 소중한 에너지 ‘건강 먹거리’

계절에 따라 자연이 선물하는 먹거리만큼 건강한 에너지원이 있을까? 계절 식재료는 맛과 향, 씹는 질감에 풍부한 영양소까지 기운을 북돋울 수 있는 든든한 자원군이다.

- 지금부터 봄이 오기 전까지 맛과 건강을 챙겨줄 계절 식재료 pick!
- ① **한라봉** 항산화 물질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이 풍부해 노화 예방, 피로 해소에 좋고, 속쓰림의 헤스페리딘은 고혈압과 동맥경화, 천식 예방에 도움이 된다.
- ② **바지락** 칼슘, 철, 인, 비타민B가 풍부하고 담글수록 육신 간 기능 활성화에 좋다.
- ③ **우렁** 이눌린 성분으로 혈당 조절, 인노 작용에 효과가 있고, 체내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효과적이다.
- ④ **도미** 지방이 적고 삶이 단단해 비만 걱정 없는 생선. 단백질이 풍부하다.

- 제주 마을기업 무릎외갓집(O.R)의 꾸러미를 구독하면 비옥한 제주 땅에서 농부들이 정성으로 수확한 계절 먹거리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제주를 우리집 식탁에!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직업일링 프로그램’

현대건설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문상담·코칭 서비스다. 마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힐링 프로그램의 문을 열어보자. 직장 문제, 부부나 이상 갈등, 자녀에 대한 고민, 원인 모를 우울감 등 모든 스트레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나의 고민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No! 근로복지기법 제83조에 의해 확실하게 익명도 보장된다. 전국 500여 개 센터에서 일대일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전화·화상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해외 부임자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임직원의 마음 건강을 위해 개인당 연 6회까지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오토웨이 게시판에 ‘직업일링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자. 상담 신청 및 문의 080-080-5988(순수자 부팀)



카타르 루사일 & 알 부스탄 고속도로 현장 2022년 월드컵을 향해 달린다



<ENR> 선정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상상이기 힘든 무더위, 까다로운 발주처 등을 이겨내고 노아우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은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이하 QJUS) & 알 부스탄 도로 확장 및 신설 공사 현장(이하 QABU) 직원들과의 매신자 인터뷰.

“직원들이 두 현장을 오가며 기술 협력... 속도도 함께 쓰조”

안녕하세요. '현장&사람' 매신자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바랍니다.

김형우 책임(이하 김형우) 안녕하세요. 2017년 7월 부임해 QABU 현장 사업지원팀에서 자체-하도급 관리를 맡고 있는 김형우 책임입니다. 늘 보던 분들인데 이렇게 매신자로 보니 더 반갑네요. 남 책임님은 한국에서 안녕하십니까?
남두일 책임(이하 남두일) QJUS 현장에서 구조물, 도로, 지장물 설계 관리를 담당했던 남두일 책임입니다. 2012년 4월부터 9개월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최근 본사에 부임했는데, 업무에는 금세 적응했는데, 옮겨올 한국 추위는 적응이 안 되네요.

최성환 책임(이하 최성환) 아예 본 분들도 여기 계시네요(웃음). QJUS 현장 사업지원팀에서 설계변경과 공무 등을 맡은 최성환 책임입니다. 2016년 4월 QJUS에 왔는데, 어느덧 57개월째 근무 중이네요.
곽필봉 책임(이하 곽필봉) QABU 현장 설계 파트 소속으로 교량 및 구조물 공사 등을 담당하는 곽필봉 책임입니다. 저는 2017년 8월에 와서 41개월째 근무 중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오랜만에 적용하는 PSM (Precast Segmental Method) 공법을 이용한 교량의 가설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QJUS 현장은 왕복 최대 18차로에 각종 제반 시설까지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QABU 현장은 카타르 내 가장 긴 교량을 짓는 공사가 포함된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성환 QJUS는 기존 8차선 도시 고속도로를 최대 18차선까지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도로뿐 아니라 터널 10개소, 교량 4개소, 마이크로 터널과 상하수도, 통신 라인, 변전소 등 각종 제반 시설까지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죠. 여기에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ITS)을 적용한 기술 집약형 복합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남두일 기존 도시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지만, 핵심은 기존 3개의 회전 교차로를 3개의 복합 교차로로 넓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현장의 메인 공사를 하나만 꼽자면 도하의 새로운 중심이자 QJUS의 남쪽 시작점인 와다(Wahda)에 세운 대형 아치 구조물인데, 일체 교차로 위로 지어야 하는 탓에 공정이 복잡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성환 QJUS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고속도로 전면 개통은 2017년 12월에 했지만, 발주처의 수백 번의 설계도면 변경으로 준공이 미뤄졌죠. 현재도 발주처에서 추가로 요청한 공사를 수행 중이라 현장 종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곽필봉 QABU는 기존 왕복 6차선인 알 부스탄(Al Bustan) 지상도로를 왕복 8차선 고가도로로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총연장 2.49km, 왕복 8차선(상-하행 분리, 편도 4차선) 교량에 8개의 진입 램프를 만들고 있고, 과업 구간에는 알 왈(AI Waab) 및 알 라시다(AI Rasheedda) 도로의 선형 개선 및 확장 공사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네트워크(ITS)를 신규 도로 선형에 맞도록 이설하고 개선하는 공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형우 2017년 9월 말 착공해 2020년 10월 13일을 기점으로 모든 고가도로가 개통했고, 지금은 발주처의 추가 요청사항을 반영해 조정 공사 등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발주처는 고가도로인 QABU를 '카타르에서 가장 긴 교량'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죠.
최성환 QABU 현장은 공사 초기부터 공기가 빠듯했습니다. 계획 공기에 맞춰 전 직원이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2019년 카타르 독립기념일(12월 18일)에 맞춰 일체 교차로 1개소와 교량 일부를 개통해 달라고 하더군요. 계획된 마일스톤보다 많은 공정을 완료해야 하기에 감리사 등이 개통에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일정에 맞춰 개통해 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공정표에 맞춰 1개 접속교를 제외한 모든 교량을 개통했는데, 공기 지연 없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주처 입장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남두일 QJUS 현장의 가장 지하시설도 개통하기 일주일 전, 발주처 실무진과 감리단 모두 제시시간에 개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3주는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요. 그때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시멘트 점검, 폐기물 청소 등을 했고 각정을 기우로 만들었습니다. 갈때 속에서 개통한 후 기우를 하기도 생각할 것을 달성했다"고 말했었는데, 무척 뿌듯했습니다.
최성환 저는 2017년 독립기념일에 맞춰 주요 도로가 전면 개통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여러 외교적인 이슈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 직원이 합심해 공사를 수행했고,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신뢰 관계를 쌓은 덕분에 무사히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진 현대건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발주처와의 최종 공사비 협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성환 QJUS와 QABU의 성공적인 오늘엔 모든 현장 직원이 흘린 땀방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남두일 인터뷰하고 있는 인원 중 가장 먼저 본사에 복귀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곧 본사에서 뵈으면 좋겠습니다.
곽필봉 모쪼록 모두가 힘내서 건강하게 웃으며 공사를 마무리 하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형우 사보가 발행되는 1월 26일에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많은 동료의 도움과 가르침 덕분에 현장 근무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JUS와 QABU의 기운을 받아 카타르의 모든 현장이 '성공수령' '무사준공'하기를 바랍니다!



곽필봉 책임 (사업수행팀)



김형우 책임 (사업지원팀)

카타르 최장 교량 건설한 '알 부스탄 도로 확장 및 신설 공사' 현장

카타르 알 부스탄 고속도로는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가장 아름답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 위로 U자형으로 가깝게 맞닿은 고가도로는 거대한 공공 예술 작품 같기도 하다. 알 부스탄 도로 확장 및 신설 공사 현장은 수도 도하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약 13km의 사바 알 하마드(Sabah Al Ahmad) 도로를 구성하는 4개 공구 중 하나로, 각 공구와 연결되는 왕복 8차선 고가도로와 도하 시내 주요 도로인 알 왈 교차로 개선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다. 발주처의 당초 계획은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었으나, 우리 회사가 경쟁적인 금액과 함께 고가도로로 대안 설계를 제안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2017년 9월 말 착공한 현장의 공정률은 99%. 계약 공기 39개월에 맞춰 고속도로를 개통했으니 준공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루사일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발주처의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 등으로 현장 종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사는 왕복 8차선 고가도로와 상하수도 이설, 기존 도로 확·포장, 조정공사 등이다. 현장은 복합 공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임시 우회도로 개통을 위해 작업 공간 확보, 지하 매설물(주로 상하수도) 시공, 교량 구조물 시공, 임시 우회도로 복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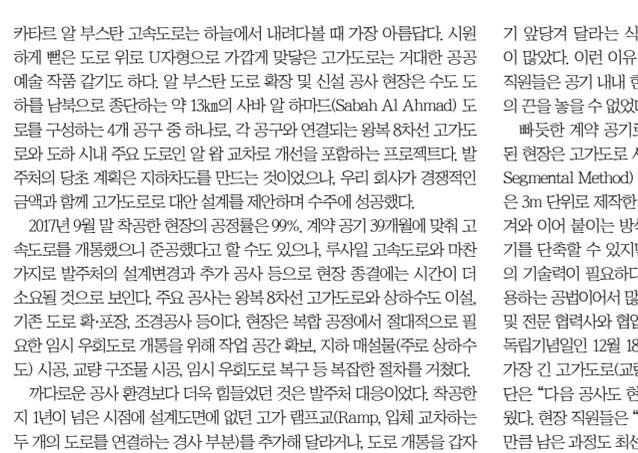
까다로운 공사 환경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발주처 대응이었다. 착공한 지 1년이 넘는 시점에 설계도면에 없던 고가 램프교(Ramp) 일체 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경사 부분을 추가해 달라거나, 도로 개통을 감자

기 앞당겨 달라는 식의 요청이 많았다. 이런 이유 탓에 현장 직원들은 공기 내내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빠듯한 계약 공기로 숨 가쁘게 진행된 현장은 고가도로 시공에 PSM(Precast Segmental Method) 공법을 사용했다. PSM은 3m 단위로 제작한 교량 거더를 현장으로 옮겨와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품질관리가 쉽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지만 선형 관리가 까다로우므로 기술력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서도 20년 만에 적용하는 공법이라 많은 사례 조사와 연구는 물론 설계사 및 전문 협력사와 협업하며 공사를 수행했다. 2019년 카타르 독립기념일인 12월 18일에 맞춰 개통한 현장은 당시 카타르의 가장 긴 고가도로(교량)로 현지 언론에 소개됐다. 발주처와 감리단은 "다음 공사도 현대건설과 함께하고 싶다"며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현장 직원들은 "어디 가도 칭찬 일색"이라며 "현장에서 인정받은 만큼 남은 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현장(QJUS)



카타르 알 부스탄 도로 확장 및 신설 공사 현장(QABU)

현장&사람 카타르가 2022년 11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각종 사회간접자본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우리 회사는 왕궁과 고급 주택단지가 위치한 카타르의 펄(Pearl) 지역과 도하 중심지를 잇는 루사일 고속도로, 수도 도하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알 부스탄 도로 확장 및 신설을 맡아 공사를 수행했다. 두 현장 모두 개통했으나 발주처로부터 각각 추가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인 상황. 같은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기술 협력은 물론 속도까지 함께 쓰며 긴밀히 소통해 온 두 현장을 만나보았다. 글=박현희

두 현장은 빌라 단지를 임대해 속도를 함께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고속도로 프로젝트이고 발주처도 같아서 자주 소통하고 교류했다고요.

최성환 서로 자재를 교환할 일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QABU 현장에서 급한 자재를 빌려와 한숨 돌렸죠(웃음).

곽필봉 QJUS의 여러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가 QABU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파이프, 철골, 케이블 등 각종 자재와 중장비, 설계·시공·공무 등 베테랑 직원들까지 넘어왔죠. ITS 담당자인 이현준 책임도 전임했고요.

김형우 2017년 당시 QJUS는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QABU는 공사 시작 단계였습니다. 외국인 직원도 우리 현장에 많이 전임했는데, 그 직원이 우리 회사 시스템이나 카타르 법령·관행 시방 등을 잘 숙지하고 넘어와 능숙하게 일을 처리해 왔죠.

곽필봉 기술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QJUS 현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현장도 도심에서 진행되다 보니 공사 초기 교통 계획(TTM, Temporary Traffic Management)을 수립해야 했어요. 저를 포함해 우리 현장에는 카타르 근무가 처음인 직원들이 많아 감리사, TTM 위원회, 경찰서를 오가며 승인을 받는 과정이 까다롭고 막막하게 느껴졌죠. 그때 QJUS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두일 카타르는 발주처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2012년에 승인받아 상수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에 카타르 수전력청(Kahramaa)의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며 200여 개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도처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많아 과거 제출했던 공문과 도면 승인 기록들을 다시 보여지면서 항의의 끝에 한두 가지 추가 공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문제를 해결했죠. 카타르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 항상 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곽필봉 QABU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QJUS 사례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QJUS로부터 초기 공정에 영향을 주는 우회도로 계획 수립, 지장물 이설 및 신설 방안, 발주처에 대한 크고 작은 탐까지 두루 전수 받았죠.

최성환 아무래도 동일 발주처와 감리단 등을 상대하다 보니 정보 교류가 잦고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 및 클레임 시 QJUS에서 승인받은 사례를 참고해 QABU가 감리단을 설득하는 등 우리 현장, 너희 현장 가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이제는 우리 회사가 지난해 말 수주한 TSE 저류조 공사 현장이 임시로 QJUS 현장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소는 3개 현장이 함께 사용하고 있죠. 공사 성격은 다르지만 현대건설의 카타르 프로젝트라는 맥이 같은 만큼 QJUS와 QABU 현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현장 모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진행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카타르의 역사에 남을 만한 큰 공사를 현대건설의 대표로 수행했다는 자부심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김형우 원래 QABU에는 수도 도하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고가도로 외에는 교량 구조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착공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알 왈 교차로에 램프 고가교를 추가해 달라고 하더군요. 램프 고가교를 시공하려면 기존 교량 설계와 공정, 교통 통제 계획 등 모든 것을 변경해야 했어요. 게다가 발주처에서 제시한 추가 공기는 '79일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정이었지만 그걸 해내는 것이 현대건설이잖아요. 최선의 설계와 최적의 시공 방안을 도출해낸 끝에 모든 공정을 주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마무리했죠.

곽필봉 QABU 현장은 공사 초기부터 공기가 빠듯했습니다. 계획 공기에 맞춰 전 직원이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2019년 카타르 독립기념일(12월 18일)에 맞춰 일체 교차로 1개소와 교량 일부를 개통해 달라고 하더군요. 계획된 마일스톤보다 많은 공정을 완료해야 하기에 감리사 등이 개통에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일정에 맞춰 개통해 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공정표에 맞춰 1개 접속교를 제외한 모든 교량을 개통했는데, 공기 지연 없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주처 입장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남두일 QJUS 현장의 가장 지하시설도 개통하기 일주일 전, 발주처 실무진과 감리단 모두 제시시간에 개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3주는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요. 그때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시멘트 점검, 폐기물 청소 등을 했고 각정을 기우로 만들었습니다. 갈때 속에서 개통한 후 기우를 하기도 생각할 것을 달성했다"고 말했었는데, 무척 뿌듯했습니다.

최성환 저는 2017년 독립기념일에 맞춰 주요 도로가 전면 개통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여러 외교적인 이슈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 직원이 합심해 공사를 수행했고,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신뢰 관계를 쌓은 덕분에 무사히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진 현대건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발주처와의 최종 공사비 협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한 현장의 동료들과 서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최성환 QJUS와 QABU의 성공적인 오늘엔 모든 현장 직원이 흘린 땀방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남두일 인터뷰하고 있는 인원 중 가장 먼저 본사에 복귀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곧 본사에서 뵈으면 좋겠습니다.

곽필봉 모쪼록 모두가 힘내서 건강하게 웃으며 공사를 마무리 하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형우 사보가 발행되는 1월 26일에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많은 동료의 도움과 가르침 덕분에 현장 근무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JUS와 QABU의 기운을 받아 카타르의 모든 현장이 '성공수령' '무사준공'하기를 바랍니다!

두 현장은 빌라 단지를 임대해 속도를 함께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고속도로 프로젝트이고 발주처도 같아서 자주 소통하고 교류했다고요.

최성환 서로 자재를 교환할 일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QABU 현장에서 급한 자재를 빌려와 한숨 돌렸죠(웃음).

곽필봉 QJUS의 여러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가 QABU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파이프, 철골, 케이블 등 각종 자재와 중장비, 설계·시공·공무 등 베테랑 직원들까지 넘어왔죠. ITS 담당자인 이현준 책임도 전임했고요.

김형우 2017년 당시 QJUS는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QABU는 공사 시작 단계였습니다. 외국인 직원도 우리 현장에 많이 전임했는데, 그 직원이 우리 회사 시스템이나 카타르 법령·관행 시방 등을 잘 숙지하고 넘어와 능숙하게 일을 처리해 왔죠.

곽필봉 기술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QJUS 현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현장도 도심에서 진행되다 보니 공사 초기 교통 계획(TTM, Temporary Traffic Management)을 수립해야 했어요. 저를 포함해 우리 현장에는 카타르 근무가 처음인 직원들이 많아 감리사, TTM 위원회, 경찰서를 오가며 승인을 받는 과정이 까다롭고 막막하게 느껴졌죠. 그때 QJUS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두일 카타르는 발주처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2012년에 승인받아 상수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에 카타르 수전력청(Kahramaa)의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며 200여 개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도처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많아 과거 제출했던 공문과 도면 승인 기록들을 다시 보여지면서 항의의 끝에 한두 가지 추가 공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문제를 해결했죠. 카타르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 항상 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곽필봉 QABU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QJUS 사례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QJUS로부터 초기 공정에 영향을 주는 우회도로 계획 수립, 지장물 이설 및 신설 방안, 발주처에 대한 크고 작은 탐까지 두루 전수 받았죠.

최성환 아무래도 동일 발주처와 감리단 등을 상대하다 보니 정보 교류가 잦고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 및 클레임 시 QJUS에서 승인받은 사례를 참고해 QABU가 감리단을 설득하는 등 우리 현장, 너희 현장 가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이제는 우리 회사가 지난해 말 수주한 TSE 저류조 공사 현장이 임시로 QJUS 현장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소는 3개 현장이 함께 사용하고 있죠. 공사 성격은 다르지만 현대건설의 카타르 프로젝트라는 맥이 같은 만큼 QJUS와 QABU 현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곽필봉 QABU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QJUS 사례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QJUS로부터 초기 공정에 영향을 주는 우회도로 계획 수립, 지장물 이설 및 신설 방안, 발주처에 대한 크고 작은 탐까지 두루 전수 받았죠.

최성환 아무래도 동일 발주처와 감리단 등을 상대하다 보니 정보 교류가 잦고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 및 클레임 시 QJUS에서 승인받은 사례를 참고해 QABU가 감리단을 설득하는 등 우리 현장, 너희 현장 가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이제는 우리 회사가 지난해 말 수주한 TSE 저류조 공사 현장이 임시로 QJUS 현장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소는 3개 현장이 함께 사용하고 있죠. 공사 성격은 다르지만 현대건설의 카타르 프로젝트라는 맥이 같은 만큼 QJUS와 QABU 현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두일 카타르는 발주처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2012년에 승인받아 상수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에 카타르 수전력청(Kahramaa)의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며 200여 개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도처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많아 과거 제출했던 공문과 도면 승인 기록들을 다시 보여지면서 항의의 끝에 한두 가지 추가 공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문제를 해결했죠. 카타르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 항상 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곽필봉 QABU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QJUS 사례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QJUS로부터 초기 공정에 영향을 주는 우회도로 계획 수립, 지장물 이설 및 신설 방안, 발주처에 대한 크고 작은 탐까지 두루 전수 받았죠.

최성환 아무래도 동일 발주처와 감리단 등을 상대하다 보니 정보 교류가 잦고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 및 클레임 시 QJUS에서 승인받은 사례를 참고해 QABU가 감리단을 설득하는 등 우리 현장, 너희 현장 가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이제는 우리 회사가 지난해 말 수주한 TSE 저류조 공사 현장이 임시로 QJUS 현장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소는 3개 현장이 함께 사용하고 있죠. 공사 성격은 다르지만 현대건설의 카타르 프로젝트라는 맥이 같은 만큼 QJUS와 QABU 현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두일 카타르는 발주처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2012년에 승인받아 상수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에 카타르 수전력청(Kahramaa)의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며 200여 개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도처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많아 과거 제출했던 공문과 도면 승인 기록들을 다시 보여지면서 항의의 끝에 한두 가지 추가 공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문제를 해결했죠. 카타르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 항상 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곽필봉 QABU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QJUS 사례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QJUS로부터 초기 공정에 영향을 주는 우회도로 계획 수립, 지장물 이설 및 신설 방안, 발주처에 대한 크고 작은 탐까지 두루 전수 받았죠.

최성환 아무래도 동일 발주처와 감리단 등을 상대하다 보니 정보 교류가 잦고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 및 클레임 시 QJUS에서 승인받은 사례를 참고해 QABU가 감리단을 설득하는 등 우리 현장, 너희 현장 가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이제는 우리 회사가 지난해 말 수주한 TSE 저류조 공사 현장이 임시로 QJUS 현장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소는 3개 현장이 함께 사용하고 있죠. 공사 성격은 다르지만 현대건설의 카타르 프로젝트라는 맥이 같은 만큼 QJUS와 QABU 현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 알 부스탄 도로 확장 및 신설 공사(이하 QABU) 현장의 고가도로 시공에는 PSM 공법이 사용됐다. 2 드론으로 촬영한 QABU 전경. 3 루사일 고속도로(이하 QJUS)의 상징, 대형 아치 구조물. 높이가 무려 100m에 달한다. 4 QJUS의 지하차도. 교량, 아치 구조물 등 시공 모습. 5 QJUS 별 IC의 노스 캐널 크로싱(North Canal Crossing Bridge) 공사 모습. 기존 교량을 철거한 후 신설 교량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1년 해외건설시장 전망과 이슈

건설시장 동향 코로나19의 여파가 세계 곳곳에 만연했던 2020년은 이제 과거가 됐지만 그 위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모든 경제 전망은 비관적인 방향으로 수정됐고, 이동 제한과 봉쇄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동시 위축'이라는 전례 없는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2021년은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도 높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해외건설시장 또한 세계 경제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코로나19 악재에도 증가세 기록한 2020년 해외건설 수주

2020년 해외건설 수주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7%(128억 달러) 증가한 3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초의 수주 증가세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반 이후 위축되기도 했지만 총 567건의 사업 수주를 통해 최근 5년 중 최고 실적을 거뒀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전년 대비 179% 증가한 133억 달러를, 아시아는 전년 대비 약 8% 감소한 115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과 아시아를 합하면 248억7000만 달러로 2020년 전체 수주의 70.8%다. 한편 연간 수주 실적이 10억 달러를 넘는 게 1965년 이래 10회에 불과한 중남미 지역은 전년 대비 2367%나 증가한 69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주의 19.7%를 차지했다.

공종별로는 플랜트 부문이 중동과 아시아 및 중남미에서의 수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186억 4000만 달러로 반등에 성공했으며, 토목 부문은 98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7% 증가, 건축 부문은 전년 대비 1억2000만 달러 증가한 50억3000만 달러로 전체 수주의 14.3%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 공사,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 홍콩 유니타드 크리스천 병원 공사 등 플랜트와 토목 및 건축 부문에서 대형 공사를 수주하며 전년 실적 대비 73.7% 증가한 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세계 건설시장 반등 기대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이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세계 건설시장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1년 세계 건설시장의 반등에 대해서는 수치상의 편차만 있을 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기관이 많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 Markit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는 발주 환경이 다소 개선되면서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2020년(10조7000억 달러) 대비 4.8% 증가한 11조3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IHS는 아시아 건설시장이 다른 지역보다 양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동은 감산 지속과 국가별 경기 부양 정책,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시장 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내년 세계 건설시장이 IHS의 전망보다 높은 7.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인도와 중국 등의 신흥국이 9.2%의 높은 성장률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종별로는 경기 침체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신규 투자가 위축됐던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플랜트 수주의 전방 산업인 세계적 기업의 설비 투자 비용(capital expenditures, CAPEX)이 증가하면서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환경, 석유화학 및 정유 프로젝트의 발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목해야 할 이슈

2021년 해외건설시장 전망뿐 아니라 시나리오별 세계 경제의 회복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제시된 세계 경제와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의 배경에는 성공적인 백신 공급과 접종, 그에 따른 코로나19의 종식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전략은 세계 경제 방향, 국제유가 추이, 탄소배출 순제로(net-zero) 시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올해 세계 경제의 방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4.4%를 기록한 세계 경제는 중국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지난해 3월, 25%에 그쳤던 긍정적 전망 비중이 12월 조사에서는 6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 경제 회복 속도는 급격히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많은 만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둘째는 국제유가의 동향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경제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기대로 배럴당 50달러 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는 에너지 수요 및 생산 패턴의 변화까지 초래해 2021년에도 코로나19 이전의 원유 수요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OPEC에 따르면 2021년 원유 수요 증가 규모는 590만 배럴/일로 지난해 평균 감소 규모인 980만 배럴/일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EIA(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에너지정보청)는 2021년 평균 국제유가를 배럴당 46달러(WTI)와 49달러(Brent)로 전망했으며, 골드먼 삭스는 2021년 중반 이후 배럴당 6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에 코로나19 종식과 세계 경제 성장이 원유 수요 증가를 견인하겠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탄소배출 순제로 시대의 도래다. 2021년은 탄소배출 순제로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50년 이전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을 위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과 전력, 에너지 효율, 교통 부문 등에

서의 친환경 정책 추진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EU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일본 등에도 정책 시그널을 주고 있다. EU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 상향을 포함하는 국가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6월까지 입법화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이상 탄소배출을 줄이고 2050년 순제로 달성이 목표다. 또한 보조금 폐지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별 정책 추진은 그린 산업 수요 확산을 본격화할 것이다.

현대건설 2021 해외건설시장 대응 방향

2021년은 위기 직후의 기회라는 측면과 과도한 정부 부채와 긴축이라는 위기가 공존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기에 효과적일 수 있는 경영 전략의 핵심은 기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확보다. 먼저,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와 진출 시장을 보유한 현대건설은 주력 시장과 상품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6개의 해외 지사를 활용한 현지 수행 체계 강화와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의 생산 프로세스 고도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탄소배출 순제로 정책 등과 같은 해외건설시장의 외부 환경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 달성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라는 기회를 만드는 만큼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선제적 영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 등 인프라 투자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도급사업 수주를 위한 기업 간 경쟁 심화가 분명한 만큼 투자개발형 사업 수행 역량 확보는 향후 해외건설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다.

해외건설시장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게임 체인저로서 코로나19의 영향은 2021년에도 여전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시장 동향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의 수립, 시행이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ESG, 상식이 되다

(사보신문)은 트렌드를 넘어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사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21년 ESG 칼럼을 기획 연재합니다.

진화하는 ESG 경영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용어는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이 ESG를 고려한 투자의 필요성을 발표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유엔책임투자원칙은 전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Kofi Annan)의 재임 시절, 전 세계 기관투자가 및 학계, 시민사회 출신 전문가 등이 모여 오랜 토론과 논의 끝에 탄생시킨 기구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 투자를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총 3635개의 투자사 및 자산가, 투자 관련 서비스 기관 등이 가입돼 있다.

ESG는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파생된 것으로, 지속가능경영 개념에 포함된다. ESG가 기업 경영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평가기관 등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면서부터다. 기업 투자를 결정할 때 전통적으로 활용했던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이기도 한 환경·사회·지배구조(또는 경제)까지 함께 고려하기 시작한 것.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기관인 블랙록과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전 세계의 연기금(年基金)들도 'ESG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투자한 기업이 환경오염, 지배구조의 불건전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투자자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투자, 대출을 받는 기업이 ESG에 집중하는 이유다.

ESG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은 과거 사회에

해로운 비즈니스로 인식돼 있는 담배와 무기 생산,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제도와 관련한 사업을 배제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ESG를 기업의 경영 철학과 내부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로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 Era Energy)를 꼽을 수 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지난 14년간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전기 및 가스 부문에서 13번이나 1위를 한 신재생에너지 회사다. CEO 짐 로보(Jim Robo)의 강력한 의지로 전 비즈니스 밸류체인에서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까지 CO₂ 배출량을 25% 감축시키고, 2029년까지 무공해 에너지(Zero-emissions Energy) 사용 비율을 70%까지 증가시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매년 CO₂ 배출 감소량,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사항, 임직원 안전사고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4년 연속 '미국 최고의 회사'이자, 2년 연속 '미국 최고의 다양성 회사'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이 됐다.

환경(E)은 대세, 사회(S)는 강세, 지배구조(G)는 뒷세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두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이 대세다. 올 1월 당선된 미국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의 1호 공약은 바로 환경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날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77일 후(바

ESG 칼럼 각종 언론매체에서 연일 오르내리는 단어, 바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다. 알 만한 이름의 기업들이 올해의 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강조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2021년 '뜨거운 감자'인 ESG를 차근차근 알아보자. 글=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이든 취임일)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가입할 것입니다"고 공표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SG를 포괄하는 지속가능경영은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는 ▶고용 및 근로조건 ▶노사관계 ▶직장 내 안전 ▶인력개발 등 인적자본 부분과 공정거래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촉진과 협력 및 상생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및 보호 등 소비자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 지역 사회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준법(Compliance)이다. 국내 우수 기업들은 준법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내·외부에 준법감시위, 윤리준법위원회, 최고준법감시자 같은 조직을 설치해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설문수렴 의지를 밝히고 있다. 얼마 전 사모펀드 사태로 곤욕을 치렀던 금융사들 역시 소비자 보호를 보완하는 조치로 올해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과 인사를 진행했다. 더욱이 MZ세대의 특징으로 설명되는 가치소비(자신의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 방식)까지 등장하며 사회 영역은 계속해서 강조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ESG 관련 평가 및 자문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항목을 확인해 보면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지배구조'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환경과 사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ESG를 평가할 때는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는 이사회와 다양성, 임원급의 보수, 소유권과 지배권, 경쟁금지 관행, 기업윤리, 반부패, 세금 투명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영역은 환경이나 사회와는 달리 오래전부터 정량화가 이뤄졌고,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탓에 ESG 항목 중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 ESG는 모든 영역이 중요하기에 각각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체계를 의미하는 지배구조가 건강하면 환경과 사회 또한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관점이 많아 지배구조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ESG 워싱' 경계해야

영국의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Ella Wheeler Wilcox)는 약 100년 전 '운명의 바람(The winds of fate)'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다. "똑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도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다른 배는 서쪽으로 간다. 이는 바람이 아니라 돛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투자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작된 ESG 바람은 어느새 많은 기업을 움직이고 있다. 어떤 기업은 제대로 된 ESG 뜻을 올리고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점검하며 사회적 가치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어떤 기업은 무늬만 ESG인 뜻을 올리고 우왕좌왕 바다를 표류하기도 한다. 이제 기업의 상식이 되어버린 ESG.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흉내만 내며 'ESG 워싱(위장 ESG주의)'을 하는 기업이 될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해를 여는 클래식가이드

문화칼럼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지만, 활기찬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한 해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글=김수영 『클래식』 저자

80년 역사상 처음, 무관중으로 치러진 신년음악회

새해가 시작되면 각국에서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그중 1월 1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열리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는 많은 이가 한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클래식 공연. 공연장을 채우는 화려한 꽃장식도 이날의 전통 행사 중 하나다. 해마다 콘서트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되고, 당일 녹음한 음반도 인기리에 판매된다. 오스트리아 역시 코로나19로 대면 공연 금지 등 정부의 제재가 있었지만, 신년음악회만큼은 예외를 뒀다. 사상 처음 무관중 공연으로 열린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생중계됐다.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연주자들이 모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독립성을 이유로 상임지휘자를 두지 않고 객원 지휘자를 초빙해 연주하는 전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음악회의 지휘를 누가 맡는지도 팬들에게는 큰 관심사다. 올해는 50여 년 동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인연을 이어온 이탈리아 거장 '리카르도 무티'(Riccardo Muti)가 지휘를 맡았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가 유명한 이유는 또 있다. 해마다 다양한 이벤트(박수 유도, 단원들의 합창 등)를 준비해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새해 음악회를 검색하면 이전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으니, 연초가 지나기 전에 나만의 방구석 신년음악회를 가져보길 추천한다.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 요한 슈트라우스

빈 필하모닉 프로그램은 빈의 대표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의 무곡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요한 슈트라우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작곡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 1세도 많은 왈츠곡을 작곡해 두 사람 모두 유럽에서 사랑받는 음악가다. 서로 우위를 다투는 경쟁자로서 '슈트라우스 대 슈트라우스'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 두 부자의 활약은 눈부

시다. 특히 쿵쾅쾅(강약약) 3박자가 도드라져 춤의 반주곡으로 여겨진 왈츠를 무도회장이 아닌 콘서트홀에서 감상하는 예술로 격상시켰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를 '왈츠의 왕'으로 만든 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과 '왈츠의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테츠키 행진곡〉은 신년음악회에서 빠지지 않고 연주된다. 도입부만 들어도 친숙한 〈라테츠키 행진곡〉의 흥겨운 멜로디는 절로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 실제로 이 곡이 연주될 때면 관객들이 객석에서 손뼉을 치며 호응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도 자주 연주되는 곡이다. 봄이 오는 기쁨을 담아내 설레는 봄날의 풍경을 연상케 한다. 특히 새소리를 닮은 플루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보통 관현악 곡으로 연주되지만, 원래는 소프라노를 위해 작곡된 노래였다. 소프라노의 화려한 기교가 더해진 버전도 들어보고 더 마음에 드는 봄의 소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클래식 초심자의 귀도 사로잡는 드보르자크

체코 출신의 작곡가 드보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도 신년음악회의 단골 연주곡이다. 드보르자크는 체코 보헤미안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정육점과 여관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기대로 가업을 이을 준비를 했지만, 그의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알아챈 친척의 도움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드보르자크는 국민 음악가로 손꼽히던 스메타나에게 음악을 배웠고, 30대에는 브람스의 눈에 띄어 악보집을 발간한다. 49세에는 프라하 음악원 교수로 임명되었고, 곧이어 뉴욕 국립음악원 원장직을 제안받아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때 미국에서 머물며 작곡한 곡이 바로 〈신세계로부터〉다.

고향 보헤미아의 민속 선율에 관심이 많았던 드보르자크는 미국에서도 흑인 영가나 인디언 민요에 매료됐다. 그래서인지 미국을 의미하는 제목의 〈신세계로부터〉는 체코 풍의 곡이라는 평을 듣는다.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곡이다. 고요하게 시작했다가 웅장한 팡파르가

터지는 도입부는 우주 공간을 유영하듯 때죽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애뜻한 호른 소리로 향수를 일으키는 2악장의 선율은 그림고 따뜻한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4악장은 듣고 있으면 쉽게 이미지가 연상돼 공포영화 〈조스〉의 OST로 쓰였다. 예측 불가능하게 뻗어 나가는 선율, 계속해서 반전되는 분위기,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연주가 영화 음악으로도 손색없는 곡이다.

브람스의 소개로 당시 유명 출판사였던 짐 로크사에서 악보집을 낸 드보르자크. 첫 성공 이후 짐 로크사는 드보르자크에게 슬라브 무곡 작곡을 요청했다. 드보르자크는 보헤미아의 다양한 민속 무곡 형식을 차용해 두 권의 악보집을 출판했다. 아련하고 감미로운 선율이 첫 소절부터 귀를 기울이게 하는 〈슬라브 무곡〉 2번 E단조를 추천한다. 피아노와 관현악 버전이 있으니 비교해서 들어보자.

희로애락이 녹아 있는 극음악 <페르퀀트 모음곡>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의 〈페르퀀트 모음곡〉은 '인형의 집'으로 잘 알려진 극작가 입센이 쓴 희곡에 곡을 붙여 만들어졌다. 관현악 작품이자 연극을 위해 작곡된 극음악으로 페르퀀트라는 제목이 낯설지 모르지만, CF나 다큐멘터리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였다. 첫 번째 곡 〈아침의 기분〉의 첫 소절만 들어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친숙한 곡이다.

희곡 〈페르퀀트〉는 허풍쟁이에 바람둥이인 페르퀀트의 모험담이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세계 각국을 떠돌며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다 쓸쓸하게 고향에 돌아온다는 고전적인 줄거리지만, 연극이 초연됐을 때 큰 성공을 거뒀다. 페르퀀트가 이집트·터키·모로코 등 각국을 여행하는 풍경, 그곳에서 만난 초록여인, 원숭이, 단추공, 트롤이 무대 위에 재현되어 객석의 눈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진 그리그의 음악은 극 곳곳에 풍부한 감정을 불어넣었다.

그리그는 공연이 끝난 후 8곡을 추려 〈페르퀀트 모음곡〉으로 발표했다. 페르퀀트의 흥분, 놀라움, 기쁨, 슬픔의 감정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곡이다. 페르퀀트가 모로코에서 맞는 새벽 풍경을 그려낸 〈아침의 기분〉, 아라비아나이트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신비로운 선율의 〈아니트라 무곡〉, 모음곡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 〈슬베이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왜 그리그가 '북구의 쇼팽'이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실감하게 된다.

새해를 활기차게 여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뜻다 세운 올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클래식을 즐기며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를 가져도 충분하다.

유튜브로 즐기는 방구석 클래식 공연

2020 신년음악회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신년음악회 특유의 화려한 꽃장식과 빼곡히 채워진 객석. 또한 빈 곳곳의 풍경을 촬영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빈 신년음악회 중계 영상의 특징.

2021 신년음악회 <라테츠키 행진곡>
홀의 아름다움은 여전하지만, 객석은 텅 비었다. 공연 끝자락에 미리 신청한 온라인 관객들이 나타나는 것도 2021년의 이색적인 풍경이다.

카를로스 클라이버 지휘 <봄의 소리>
봄의 풍경을 묘사한 곡으로 봄의 설렘과 따뜻함이 물씬하다.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지휘자의 발동작, 손동작마저 근사한 춤동작처럼 보인다.

라파엘 쿠벨릭 지휘 <신세계로부터>
드보르자크 〈신세계로부터〉는 같은 체코 출신 지휘자 라파엘 쿠벨릭의 연주를 최고로 꼽는다. 42년 만에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감동적인 영상.

<Going Home>
드보르자크의 제자 윌리엄 피셔가 〈신세계로부터〉 2악장에 가사를 붙여 'Going home'이라는 노래로 편곡했다. 리베라 소년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보자.

사이먼 래틀 지휘 <슬라브 무곡 2번 E단조>
'노다메 칸타빌레' 등 드라마 OST로도 많이 쓰여 귀에 익은 곡일 것. 관현악 버전이 마음에 든다면 피아노 버전도 들어보자.

장한나 지휘 <아침의 기분>
장한나가 상임지휘자로 있는 노르웨이 트른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다. 조용하게 빛이 비치는 풍경이 떠오르는 서정적인 곡이다.

다우스고르 지휘 <아니트라 춤>
〈페르퀀트 모음곡〉 중 3곡 〈아니트라 춤〉은 아라비아 추장의 딸 아니트라와 우아한 춤을 묘사한 곡이다. 트라이앵글 소리가 신비로움을 더한다.

미샤 마이스키 연주 <슬베이그의 노래>
모험과 역경 끝에 집으로 돌아온 늙은 페르퀀트. 백발의 아내가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굵직한 첼로 선율이 애잔하고 여운이 깊다.

몽글몽글한 그림책과 따뜻한 신년을!

새해가 시작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당분간은 집콕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현실. 새해 분위기를 내지 못해 왠지 모르게 헛헛한 마음이 든다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림과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그림책들을 만나보자. 글=권나운 칼럼니스트 / 표지=출판사 제공



『엄마는 집 같아요』
글·그림 오로레쁘띠 | 개암나무

엄마가 열 달 동안 소중히 품었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쑥쑥 자라고 첫 걸음마를 뒀 때까지,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수많은 순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해 아름답게 그려낸 책이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걷는 엄마는 캥거루 같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청소기를 돌리는 엄마는 태풍 같고,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는 분수 같다는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주옥같다. 특히 이 책의 제목이자 처음과 마지막 장면을 잇는 '엄마는 집 같아요'라는 표현은 이 그림책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강렬한 감동을 자아내는 킬링파트.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에게는 설렘을, 코로나 시대의 육아로 고된 하루를 이어가는 엄마에게는 추억을, 여전히 엄마 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엄마의 소중함을 선사할 것이다.



『심장도둑』
글·그림 사이다 | 사계절

톡톡 튀는 발랄한 유머가 돋보이는 그림책. 어느 날 산책길에 하트 바람이 불기 시작해 마을 사람들의 심장이 '심쿵'하고 떨어진다. 모두의 심장을 훔쳐간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심장도둑을 찾아 빠르게 페이지를 넘길 수록 세상은 하트로 가득 찬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주된 하트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시끌벅적한 소동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심장도둑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 반전이 어찌나 감동적인지 첫 장으로 돌아가 되풀이해 읽고 싶을 정도다. 리드미컬한 이미지에 생동감 넘치는 스토리까지! 새해 우리 마음을 '심쿵'하게 할 그림책임에 틀림없다.



『이 세상 최고의 딸기』
글 하야시 기린 | 그림 쇼노 나 오코 | 길벗스쿨

딸기 한 알을 처음 만난 하얀 곰의 이야기. '딸기를 보내드릴게요'라는 편지로 시작하는 『이 세상 최고의 딸기』는 감각적이면서도 오랫동안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림책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기를 기다리는 하얀 곰의 귀여운 상상과 빨간 딸기 한 알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는 순수함을 보고 싶노라면 '진짜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끊임없이 많이 소유하길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사랑스러운 동물 캐릭터의 활약으로 아이의 시선에서도 충분히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글 이자벨 미노스 마르티스 | 그림 마달레나 마토소 | 그림책공작소

포르투갈 아동작가협회 선정 '최고의 어린이책' 상을 수상한 그림책. 정지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감각적인 그림과 시적인 글로 표현해 단순하지만 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아이들은 시각적인 즐거움과 운율을 즐길 수 있고, 어른들은 순간과 영원이라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 남녀노소 함께 읽기 좋은 책이다. 새해 목표를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 책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어디로 가게』
글·그림 모예진 | 문학동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2년 연속 일러스트레이터 전시 작가로 선정된 모예진 작가의 창작 그림책. 여행자들에게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버스표를 파는 '어디로 가게'의 주인, 묘묘씨의 이야기다. 작가 특유의 청량감 넘치는 색채와 담담한 문장이 어우러져 보는 이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묘묘씨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당장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날 정도. 그 마음을 예상했다는 듯, 맨 마지막 장에는 날짜와 행선지가 적혀 있지 않은 '어디로 버스' 승차권 한 장이 놓여 있다.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그날을 상상하며 읽어보길!

